

건축계의 앞날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Some Discussions for the Future of Architecture

이정호 / 대구대학교 건축과 교수

by Lee Jeong-Ho

요즈음 같이 건축하기가 힘든 때가 없다고 한다. 건설회사들의 도산이 정치적 부정과 경제적 부실의 대표 격으로 “이 화면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이란 자막도 없이 TV에 그 흔한 화장품 선전광고처럼 등장한다. 그것을 보는 우리들도 무언중 공감, 혹은 불감증으로 그냥 보아 넘긴다. IMF때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이 건축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이나 교수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으려 한다. 건축인들의 모임에서도 더 이상 일에 대해 묻는 것은 실례이다. 현재로서는 건축인들에게 꿈과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연명하고 있는 듯 하다. 그래도 여전히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건축과는 높은 점수가 요구되는 인기학과다. 그들의 기대와 바람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대학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옛말처럼 나면서 자기밥그릇은 타고난다는 말을 믿을까? 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문제해결책에 불만을 가진 각 집단들의 목소리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지만 건축인들은 조용하다. 점잖게 참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 좋은 게 좋다는 정도를 대충대충, 두리뭉실 혹은 개인간의 인간적 친분관계로 처리하는 사고방식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 건축계 전체의 앞날을 위한 마음으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 판에서와 같은 물통순서, 나누어 먹기 혹은 적당한 안배와 같은 관행은 이제 그만 하자. 부정의 온상처럼 잘못 알려진 이미지를 이제 그만 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에 대구지역에서는 건축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간에 활발한 논의가 일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상공모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서 앞으로 적절한 시행방법을 모색하려 하고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의 관청이나 기관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지켜지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고에 의해 처리되는 현상공모의 시행방법과 그 선정과정 그리고 당선작에 대한 실시설계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지금 이대로 그냥 두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기준을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현상공모가 열리지만 균등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지금처럼 일이 없을 때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게 하여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그를 위해 현상공모시행에 필요한 사전지침과 프로그램 발주처, 준공 후 사용자집단 그리고 출품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준비팀(위원회)을 만들어서 안을 내고 공모의 전과정을 준비, 관리하게 해야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첫째, 심사위원을 지금처럼 학계위주에서 탈피하여 건축의 다양한 관련분야에서의 전문가(앞에서 말한 이용자대표까지를 포함)를 엄선하고 사전에 명단을 관련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의 전과정이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예비심사의 경우 심사대상이 많은 경우 비디오 녹화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개진내용을 공개하는 등 특히 당선작을 정하는 최종심사에서는 출품자 전원의 제한 공개설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심사위원과 출품자간에 질의응답 혹은 토론의 여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의 결정권은 심사위원이나 출품자가 아닌 준비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시간과 제반 경비인데, 그것은 건

축계의 앞날을 위해 봉사하는 심사관련자들의 마음가짐과 당선작에는 주지 않는 상금부분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큰 대의명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셋째, 출품자들이 프리젠테이션에 최소한의 경비가 들도록 하여야 하며 정직한 표현이 되도록 해야한다. 건축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표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프리젠테이션에 수 천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면 가난한 건축가는 결국 참가기회도 얻지 못한다.

넷째, 정말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을 제외하고 경력의 기준을 일부 특정인들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초, 중등학교가 사전에 경력이 없다고 설계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건물인가?

다섯째, 당선작의 결정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작품이 완공될 때까지 관련자들의 참여가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들어보면 어떤 관청이나 기관에서는 당선이후 이리저리한 간섭과 강요로 당선작의 원 의도가 심하게 변질되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싸우는 작가정신이 분명 필요하지만 한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건축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공모의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완공 시까지 참가하여 도와준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성건축가를 상대로 한 현상공모 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 미래의 건축가로의 올바른 길을 교육하기 위한 장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심사의 공정성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일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이 주제전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졸업작품을 출품하기 때문에 교내전과 거의 동일한 작품이 반복 출품되므로 창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수상작도 그 권위나 가치가 떨어져 기성 건축인 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외면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이런 현상은 건축인 스스로의 위상과 작품의 가치를 퇴락시키는 것이며, 또한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일인 일 작품으로 해야한다. 협동작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는 교육의 과정 중에 얼마든지 시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위한 공모전의 성격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기성건축가들이 서울 혹은 외국과 협동작업을 통한 현상공모에 출품하는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름만 빌려주고 경비만 분담하는 콘소시엄은 건축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거기서 우리의 후배 건축인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까? 요령과 재주로 명예와 돈버는 것 뿐일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건축인들의 설계 영역의 확대이다. 익히 알다시피 건축은 과거에는 모든 디자인의 통합체로서 소위 종합예술이라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건축가가 실내디자인이나 가구디자인을 하면 마치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었다. 거품경제시대에는 건축만으로도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 건축인은 리노베이션과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개념과 경관계획개념을 도입한 설계에 대해 공부하고 작업해야한다. 어쩌면 교량이나 도시환경시설물과 환경조형물에 이르기까지의 전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계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디자인캠프나 아카데미의 참가를 설계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견해와 건축인들이 치르는 일련의 행사들을 건축인 만의 행사가 아닌 관계예술인과 대중들이 함께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으나 이것은 추후 또다른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까 한다. ▣